

# 유아의 연령별·성별 보조사 사용에 관한 연구: 4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필영(한양대)\* · 김정선(한양대)\*\* · 이상숙(한양대)\*\*\*

## < 목 차 >

1. 서론	사용 양상
2. 연령별·성별 변인에 따른 형태의 출현과 사용 양상	3.1 연령별 분포에 따른 출현 및 사용 양상
2.1 연령별 형태의 출현 및 사용 양상	3.2 성별 분포에 따른 출현 및 사용 양상
2.2 성별 형태의 출현 및 사용 양상	4. 결론
3. 연령별·성별 분포에 따른 출현과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만 4-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보조사 연구는 아동의 자발어, 그림선택법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연섭·권경안·김성일 1979, 권도하·정분선 2000, 배소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생

영 1997, 이순형 1983, 황미하 2003)<sup>1)</sup>. 이들 연구는 보조사의 산출 빈도와 사용 비율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 순서와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몇몇 연구는 언어 장애 아동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김수영·배소영 2002).<sup>2)</sup>

이들 보조사 연구에서는 유아가 산출하는 보조사 목록 전체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만을 밝히고 있어 언어 발달의 주요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선행 요소와의 결합이 자유로운 보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사의 결합 분포적 양상에 대한 논의도 빠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보조사의 출현 목록과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보조사와 결합하는 선행 요소와의 분포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화 자료는 만 4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9개 기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수집하였다.<sup>3)</sup> 녹음 환경은 빈 교실에 두 명씩

1) 유아의 보조사에 대한 연구는 횡적 연구와 종적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연섭·권경안·김성일(1979)은 3-6세 아동 22명에 대한 횡적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발어에서 조사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는(대조)’과 ‘도’의 사용이 3세부터 4세까지는 증가하지만 4세에는 사용비율이 급속히 낮아졌고, 이후 4세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권도하·정분선(2000)은 2-5세 아동 190명을 대상으로 한 횡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발어에서 조사의 사용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는’이 2세 6개월-3세 5개월, ‘도’는 3세 6개월-3세 11개월, ‘만’은 4세 이후에 대상 아동 중 50-80%의 아동이 1번 이상 사용했음을 언급하면서 보조사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여주었다. 배소영(1997)은 2-7세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그림선택법을 이용해 ‘가, 이, 는, 도, 를’의 이해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포함된 보조사는 ‘는’과 ‘도’인데 ‘는’이 ‘도’보다 더 빨리 습득되었다고 하였다. 이순형(1983)은 종적연구로 2세 8개월부터 2세 11개월 사이에 ‘도’와 ‘만’이 빈번히 산출되지만 대조를 나타내는 ‘는’은 2세 11개월부터 4세 3개월 사이에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황미하(2003)는 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30개월에서 41개월 동안 언어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보조사 습득에서는 ‘은/는’이 가장 많이 산출되었고, ‘도’, ‘요’, ‘만’, ‘밖에’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3세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전체 보조사 산출 빈도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김수영·배소영(2002)에서는 보조사의 사용 빈도는 정상 아동과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의 차이가 없으며 정상 아동은 하지 않는 보조사 첨가나 탈락 실수를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이 보인다고 하였다.

찍을 지어 40분 동안 자유롭게 놀이를 하며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대화 현장에 참여하여 아동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이를 녹음하여 자료 분석 시에 아동별 구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녹음 관련 주의 사항을 알려준 다음, 대화 현장에서 물러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낮아 아동들만으로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녹음 시작 전부터 대상자들이 긴장하여 대화나누기를 꺼려하는 경우 등에는 조사원이 참여하여 대화를 유도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성별 분포

나이	4세		5세		6세		총합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대상자수	44	41	58	55	39	40	277

조사 수집된 대화 녹음 자료는 3차에 걸쳐 파일 당 2,000어절씩 한글 파일로 전사하였다.<sup>4)</sup> 한글 전사 파일을 기초 자료로 하여 보조사 연구를 위한 분석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 1) 한글 파일에서 보조사가 포함된 유아 발화를 표시하는 1차 태깅을 실시하였다.
- 2) 1차 태깅 파일에서 보조사 발화만을 추출한 후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2차 태깅을 실시하였다. 2차 태깅 정보는 조사 대상자 정보, 출현 보조사 형태, 대표형, 선행 결합 요소의 항목이다. 태깅의 실제 형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의 <연령별 구어 말뭉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전사는 국어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였고 일정한 전사 원칙에 따랐다. 유아의 1차 전사는 발화자 표시와 발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화 내용을 그대로 문자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2차 전사는 발화자 정보, 녹음 시간, 날짜, 전사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헤더를 부착하였으며, 표준어 표기, 말걸침이나 구말, 비언어적 음성, 휴지 등 발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발화자의 특이한 어조 등의 정보를 표시하였다. 3차 전사는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나이	성별	대상자 번호	말차례 번호	발화	형태	대표형	결합	비고
4	F	B59	127	난 경찰서 해야지	ㄴ	은	명사구	

‘나이, 성별, 대상자 번호’는 조사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이고, ‘말차례 번호’는 해당 발화가 한글 파일에서 출현한 말차례 번호이다. ‘형태’에는 발화에 출현한 실제 형태 정보를 기입하였고, ‘대표형’은 실제 발화에서 출현한 다양한 형태 가운데 대표형을 지정하여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ㄴ’, ‘은’, ‘는’으로 실제 출현한 형태는 대표형 ‘은’ 하나로 통일하여 기입하였다. ‘결합’은 보조사가 어떤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지를 표시하였다.

3) 분석은 보조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 사용 화자수와 비율을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연령별·성별 조사 대상자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출현 빈도와 함께 비율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 등에 따라 동일한 보조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빈도만으로는 사용 분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사용 화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도 함께 산출하였다. 조사 집단에서 몇 명의 화자가 사용하는 지를 조사함으로써 사용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사용 화자수도 출현 빈도와 마찬가지로 연령별·성별 조사 대상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조사를 사용한 화자 수를 조사 집단 전체 대상자 수로 나누어 사용 화자 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 2. 연령별·성별 변인에 따른 형태의 출현과 사용 양상

만 4세-6세 아동의 보조사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성별로 전체 발화 수 대비 보조사 출현 빈도와 비율을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2> 전체 발화수 대비 보조사 출현 빈도와 비율<sup>5)</sup>

나이	성별	전체 발화수(회)	보조사 출현빈도(회)	보조사 출현비율(%)
4세	여자	6060	1376	22.71%
	남자	6036	1265	20.96%
5세	여자	8236	2374	28.82%
	남자	9364	2025	21.63%
6세	여자	6297	1951	30.98%
	남자	6127	1427	23.29%
총합계		42120	10418	24.73%

<표 2>를 보면, 만 4세-6세 조사 아동 전체의 보조사 출현 비율은 24.73%이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모든 연령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보조사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필영·김정선·심민희(2009)에서 조사한 31개월-43개월 아동의 보조사 출현 비율은 11.4%로 나타나 만 4-6세 아동이 보다 높은 비율로 보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연령별·성별 변인에 따라 출현하는 보조사의 목록과 사용 양상을 출현 빈도와 사용화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 연령별 형태의 출현 및 사용 양상<sup>6)</sup>

### (1) 보조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

만 4세-6세 아동의 자료에서 출현한 보조사 목록은 총 12개로 이들을 연령별, 성별 출현 빈도와 비율을 보이면 다음 <표 3>과 같다.

5) 보조사 출현비율은 보조사 출현빈도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6) 보조사의 습득은 개별 보조사가 지닌 의미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성인의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부터 차례로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사의 의미 특성을 범주화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연령에 따른 보조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sup>7)</sup>

형태	4세		5세		6세		총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은	1363	11.27%	2390	13.58%	1845	14.85%	5598	13.29%
도	678	5.61%	1024	5.82%	698	5.62%	2400	5.70%
만	258	2.13%	409	2.32%	291	2.34%	958	2.27%
들a	131	1.08%	229	1.30%	209	1.68%	569	1.35%
다(가)	54	0.45%	99	0.56%	136	1.09%	289	0.69%
까지	69	0.57%	87	0.49%	58	0.47%	214	0.51%
밖에	25	0.21%	49	0.28%	30	0.24%	104	0.25%
부터	24	0.20%	47	0.27%	22	0.18%	93	0.22%
(이)나	7	0.06%	25	0.14%	37	0.30%	69	0.16%
대로	8	0.07%	18	0.10%	31	0.25%	57	0.14%
씩	19	0.16%	15	0.09%	15	0.12%	49	0.12%
마다	5	0.04%	7	0.04%	6	0.05%	18	0.04%

〈표 3〉을 보면, 4세, 5세, 6세의 출현 목록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목록에서는 31-43개월 아동과 마찬가지로 만 4-6세 아동의 자료에서도 ‘은’이 가장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도, 만, 들a, 다(가), 까지, 밖에, 부터, (이)나, 대로, 씩, 마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sup>8)</sup> 또한 ‘은, 만, 들a, 다(가), (이)나, 대로, 마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현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 (2) 보조사의 사용 화자 수와 비율

다음은 출현한 보조사를 연령별로 조사 대상자 가운데 몇 명의 화자가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화자 수에 대비해 해당 보조사 형태를 사용한 화자 수와 비율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 〈표 4〉와 같다.

7) 총합계 비율은 보조사 출현빈도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고, 연령별 비율은 보조사 출현빈도를 각 연령별 발화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8)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와 같이 체언에 후행하는 경우에는 ‘들a’로, ‘너희나 가서들 만나들 봐라.’와 같이 용언에 후행하는 경우에는 ‘들b’로 구분하여 태깅하였다. 자료에서 ‘들b’는 출현하지 않았다.

<표 4> 연령에 따른 보조사의 사용 화자수와 비율<sup>9)</sup>

형태	4세		5세		6세		총합계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은	84	98.82%	111	98.23%	79	100.00%	274	98.92%
도	82	96.47%	110	97.35%	77	97.47%	269	97.11%
만	67	78.82%	104	92.04%	69	87.34%	240	86.64%
들a	46	54.12%	70	61.95%	52	65.82%	168	60.65%
다(가)	23	27.06%	42	37.17%	45	56.96%	110	39.71%
까지	25	29.41%	46	40.71%	31	39.24%	102	36.82%
밖에	20	23.53%	34	30.09%	20	25.32%	74	26.71%
부터	13	15.29%	21	18.58%	19	24.05%	53	19.13%
(이)나	5	5.88%	14	12.39%	23	29.11%	42	15.16%
대로	7	8.24%	12	10.62%	16	20.25%	35	12.64%
씩	7	8.24%	11	9.73%	12	15.19%	30	10.83%
마다	4	4.71%	5	4.42%	5	6.33%	14	5.05%

<표 4>를 보면, ‘은, 도, 만, 들a’이 50% 이상의 화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과 ‘도’는 조사 대상 아동 중 95%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나, 다(가), 대로, 마다, 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 화자 수가 많아졌고, ‘까지, 들a, 만, 밖에, 은’은 4세보다 5세 또는 6세의 사용 화자 수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조사 형태별 사용 화자 수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표 4>에서 눈여겨 볼 형태는 ‘다(가)’와 ‘(이)나’이다. 이 두 형태는 4세와 6세 사이에 큰 폭의 변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다(가)’는 4세에 27.06%를 보이던 사용 화자수 비율이 6세에 이르러서는 56.96%의 비율을 보여 4세-6세 시기에 습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나’도 4세에 5.88%의 비율이던 것이 6세에 29.11%를 보여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습득이 시작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9) 총합계 비율은 보조사 사용 화자 수를 전체 화자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고 연령별 비율은 보조사 사용 화자 수를 각 연령별 사용 화자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연령별로 보조사 출현 빈도와 사용 화자수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두 결과 모두 ‘은, 도, 만, 들a, 다(가), 까지, 밖에, 부터, (이)나, 대로, 씩, 마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조사의 사용 비율도 높아졌다.

## 2.2 성별 형태의 출현 및 사용 양상

### (1) 보조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

만 4세-6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보조사 출현 빈도와 비율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보조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

형태	여자		남자		총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은	3115	15.13%	2483	11.53%	5598	13.29%
도	1263	6.13%	1137	5.28%	2400	5.70%
만	540	2.62%	418	1.94%	958	2.27%
들a	317	1.54%	252	1.17%	569	1.35%
다(가)	189	0.92%	100	0.46%	289	0.69%
까지	85	0.41%	129	0.60%	214	0.51%
밖에	44	0.21%	60	0.28%	104	0.25%
부터	41	0.20%	52	0.24%	93	0.22%
(이)나	31	0.15%	38	0.18%	69	0.16%
대로	32	0.16%	25	0.12%	57	0.14%
씩	30	0.15%	19	0.09%	49	0.12%
마다	14	0.07%	4	0.02%	18	0.04%

총 12개의 형태 목록 가운데 ‘은, 도, 만, 들a, 다(가), 대로, 씩, 마다’의 8개 형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출현 빈도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까지, 밖에, 부터, (이)나’의 4개 형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빈도 순위는 여자와 남자 모두 동일하게 ‘은, 도, 만, 들a’의 순으로 출현하였지만, 그 이외의 보조사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는 ‘다(가), 까지, 밖에, 부터, 대로, (이)나, 씩, 마다’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남자는 ‘까지, 다(가), 밖에, 부터,



(이)나, 대로, 씹, 마다'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 도, 만, 들a'를 제외한 형태들은 출현 빈도가 극히 낮아 성별에 따른 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보조사의 사용 화자 수와 비율

성별 변인에 따른 보조사의 형태별 사용 화자 수와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성별에 따른 보조사의 사용 화자수와 비율

대표형	여자		남자		총합계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은	141	100.00%	133	97.79%	274	98.92%
도	135	95.74%	134	98.53%	269	97.11%
만	125	88.65%	115	84.56%	240	86.64%
들a	90	63.83%	78	57.35%	168	60.65%
다(가)	64	45.39%	46	33.82%	110	39.71%
까지	49	34.75%	53	38.97%	102	36.82%
밖에	33	23.40%	41	30.15%	74	26.71%
부터	27	19.15%	26	19.12%	53	19.13%
(이)나	21	14.89%	21	15.44%	42	15.16%
대로	18	12.77%	17	12.50%	35	12.64%
씹	15	10.64%	15	11.03%	30	10.83%
마다	13	9.22%	1	0.74%	14	5.05%

<표 6>을 보면, 여자 화자는 모두 '은'을 사용하였지만, 남자는 '도'를 사용한 화자가 약간 높았다. 성별로 보조사 사용 화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은, 만, 들a, 다(가), 부터, 대로, 마다'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다(가), 마다'는 눈에 띄게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 화자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도, 까지, (이)나, 씹'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조사 출현 빈도 비율과 사용 화자수의 비율 결과를 정리해 보면, 두 결과 모두 '은, 도, 만, 들a, 다(가), 까지, 밖에, 부터, (이)나, 대로, 씹, 마다'순으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에서는 총 12개 보조사 중 '은, 도, 만, 들a, 다(가), 대로, 씹, 마다'의 8개가 여자가 높았고, 사용 화자 수에서는 '은, 만, 들a, 다(가), 부터, 대로,

마다의 7개가 여자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보조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sup>10)</sup>

### 3. 연령별·성별 분포에 따른 출현과 사용 양상

보조사는 명사구 이외에도 격조사, 어미, 부사, 보조사 등과의 결합도 가능하여 선행 성분과의 결합이 자유로운 편이다. 여기에서는 만 4세-6세 아동의 자료에 출현한 보조사의 선행 요소의 분포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연령별 분포에 따른 출현 및 사용 양상

##### (1) 보조사의 분포별 출현 빈도와 비율

보조사의 연령 변인에 따른 분포별 사용 빈도와 비율을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

10) 전체 발화수 대비 형태별 발화수 비율(= 보조사 형태별 발화수/전체 발화수 × 100)도 위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은(11.85%), 도(5.32%), 만(2.15%), 들a(1.22%), 다(가)(0.66%), 까지(0.47%), 밖에(0.24%), 부터(0.21%), (이)나(0.15%), 대로(0.14%), 씩(0.11%), 마다(0.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령 변인에 따른 보조사 분포별 사용 빈도와 비율<sup>11)</sup>

형태	4세					5세					6세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은	13	14	1303	30	3	51	22	2262	47	8	51	34	1725	31	4
	0.11	0.12	10.77	0.25	0.02	0.29	0.13	12.85	0.27	0.05	0.41	0.27	13.88	0.25	0.03
도	26		634	6	12	35	4	938	17	30	23	2	635	24	14
	0.21		5.24	0.05	0.10	0.20	0.02	5.33	0.10	0.17	0.19	0.02	5.11	0.19	0.11
만	2		119	3	134	11	1	190	6	201	7	1	147	3	133
	0.02		0.98	0.02	1.11	0.06	0.01	1.08	0.03	1.14	0.06	0.01	1.18	0.02	1.07
들a	0		129		2			229					209		
	0.00		1.07		0.02			1.30					1.68		
다(가)	20		34			23		76			72		64		
	0.17		0.28			0.13		0.43			0.58		0.52		
까지	3		61		5	1		86			2	1	54		1
	0.02		0.50		0.04	0.01		0.49			0.02	0.01	0.43		0.01
밖에			19		6			41		8			22		8
			0.16		0.05			0.23		0.05			0.18		0.06
부터	1		22	1		12		33		2	2		20		
	0.01		0.18	0.01		0.07		0.19		0.01	0.02		0.16		
(이)나			7					24	1				37		
			0.06					0.14	0.01				0.30		
대로			8					18					31		
			0.07					0.10					0.25		
씩			19					14		1			12		3
			0.16					0.08		0.01			0.10		0.02
마다			5					7					6		
			0.04					0.04					0.05		

<표 7>을 보면 출현한 보조사 12개는 모두 명사구와 결합이 이루어졌다. ‘은’은 4세부터 6세까지 모두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와 결합이 이루어졌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합 비율도 높아졌다. ‘도’와 ‘만’은 4세에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다가 5세부터는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결합 비율의 규칙성은 보이지 않았다. ‘들a’는 4세에서는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이 이루어졌지만 5세와 6세에서는 명사구와만 결합하였다. 명사구와의 결합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다(가)’와 ‘밖에’는 각각 격조사와 명사구,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하

11) 비율은 보조사 분포별 사용 빈도를 각 연령별 발화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였는데 결합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4세와 비교했을 때 6세의 결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까지’는 결합 유형이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4세와 비교하였을 때 6세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결합비율은 4세와 6세를 비교하였을 때 같거나 낮았다. ‘부터’는 4세에서는 격조사와 명사구, 보조사와 결합하였고 5세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으며 6세에서는 격조사, 명사구와 결합하였고, 연령에 따른 결합비율의 규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로’와 ‘마다’는 명사구와 결합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합 비율도 높아졌다. ‘(이)나’는 4세와 6세에서는 명사구와 5세에서는 명사구와 보조사와 결합하였는데 명사구와의 결합비율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씩’은 4세에서는 명사구와 5세, 6세에서는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결합비율의 규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와의 결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합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졌고 부사와의 결합은 결합 비율이 4세와 5세에는 높아졌다가 6세에 낮아졌다.

(2) 보조사의 분포별 사용 화자 수와 비율

연령 변인에 따른 보조사의 분포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을 보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령 변인에 따른 보조사 분포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sup>12)</sup>

형태	4세					5세					6세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은	9	10	84	20	3	33	20	111	27	5	30	20	79	20	4
	10.6	11.8	98.8	23.5	3.5	29.2	17.7	98.2	23.9	4.4	38.0	25.3	100.0	25.3	5.1
도	21		82	6	9	25	3	110	15	19	19	1	77	16	12
	24.7		96.5	7.1	10.6	22.1	2.7	97.4	13.3	16.8	24.1	1.3	97.5	20.3	15.2
만	2		53	3	45	10	1	82	4	78	6	1	52	2	48
	2.4		62.4	3.5	52.9	8.9	0.9	72.6	3.5	69.0	7.6	1.3	65.8	2.5	60.8
들a			45		1			70					52		
			52.9		1.2			62.0					65.8		
다 (가)	11		16			15		35			32	0	31		
	12.9		18.8			13.3		31.0			40.5	0.0	39.2		
까지	1		23		4	1		46			2	1	29		1

	1.2		27.1		4.7	0.9		40.7		2.5	1.3	36.7		0.0
밖에			16		5			26		8		16		8
			18.8		5.9			23.0		7.1		20.3		10.1
부터	1		12	1		9		17		1	2	18		
	1.2		14.1	1.2		8.0		15.0		0.9	2.5	22.8		
(이) 나			5					13	1			23		
			5.9					11.5	0.9			29.1		
대로			7					12				16		
			8.2					10.6				20.3		
씩			7					10		1		10		3
			8.2					8.9		0.9		12.7		3.8
마다			4					5				5		
			4.7					4.4				6.3		

위 <표 8>을 보면, ‘은’은 4세부터 6세까지 모두 격조사, 어머니, 명사구, 보조사, 부사와 결합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 화자 수의 비율도 늘어났다. 특히 6세 명사구와의 결합에서는 모든 화자들이 다 사용하였다. ‘도’와 ‘만’은 4세에서 어머니와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는 격조사와의 결합에서 사용 화자 비율이 낮아졌고 나머지는 모두 비율이 올라갔다. ‘만’은 보조사와의 결합에서 사용 화자 비율이 내려갔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4세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늘어났다. 나머지 보조사들의 결합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화자비율도 높아졌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합유형이 다양해지지는 않았다.

### (3) 보조사의 분포별 결합 양상<sup>13)</sup>

앞서 보조사의 분포적 양상을 보조사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결합하는 선행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격조사와의 결합<sup>14)</sup>

12) 비율은 보조사 분포별 사용 화자 수를 각 연령별 화자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13) 분포별 결합양상에서는 출현 빈도는 각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출현 빈도 비율은 전체 발화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출현빈도가 높지 않으면 0.00%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현빈도로 연령별·성별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4) 명사구, 부사, 격조사, 보조사, 어머니 이상 5가지 분포 유형 가운데서 선행하는 구성이 폐쇄적 집합의 성격을 지닌 격조사, 어머니, 보조사와의 결합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격조사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에’, ‘에서’, ‘(으)로’, ‘한테’, ‘하고’, ‘보다’의 격조사가 보조사에 선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 가. 야, 그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게 잊어버렸다? (4세, 여자)
- 나. 선생님 저는요, 따랑(사랑)유치원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4세, 여자)
- 다. 나 이걸로도 계단 만들 수 있는데. (5세, 여자)
- 리. 히- 오빠한테도, 형한테도, 무슨 짓이야. (5세, 여자)
- 미. ○○이하고는 엄청 친해요, 나보다 더 친해요. (5세, 남자)
- 비. 바이엘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거. (6세, 남자)
- 시. 애랑 애랑은- 맨날 사랑에 빠졌어. (5세, 여자)
- 오. 나에게는 우주인. (5세, 남자)

(1가)-(1오)은 자료에서 관찰된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예들이다. 보조사 ‘도, 는’이 주로 격조사와 결합하였다.

다음은 연령별로 격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연령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9> 격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연령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sup>15)</sup>

격조사	4세		5세		6세		총합계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에	34	40.00%	52	46.02%	47	59.49%	133	48.01%
에서	7	8.24%	17	15.04%	10	12.66%	34	12.27%
(으)로	1	1.18%	4	3.54%	8	10.13%	13	4.69%
한테	3	3.53%	4	3.54%	5	6.33%	12	4.33%
하고	1	1.18%	2	1.77%	0	0.00%	3	1.08%
보다	0	0.00%	1	0.88%	1	1.27%	2	0.72%
에게	0	0.00%	1	0.88%	0	0.00%	1	0.36%
랑	0	0.00%	1	0.88%	0	0.00%	1	0.36%

<표 9>를 보면, ‘에’가 40% 이상의 아동에게서 보조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에서’가 10% 내외의 화자 비율을 보이면서 보조사와 결합하고

개방적 집합인 명사구와 부사와의 결합 양상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15) 위 비율은 해당 격조사가 결합된 결합유형 화자수를 전체 화자수로 나눈 것이다.

있었다. 이필영·김정선·심민희(2009)에서 조사한 31-43개월 유아의 경우도 ‘에’와의 결합은 대상 아동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으)로’와 ‘한테’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사용 화자 수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하고, 보다, 에게, 랑’과 보조사의 결합은 각 연령에서 한두 화자에게서만 출현하고 있었다.<sup>16)</sup>

보조사와 결합하는 격조사 가운데 ‘에’가 가장 높은 비율의 사용 화자 수를 보였는데 이때 결합하는 보조사는 ‘도’와 ‘은’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고, ‘까지, 다(가), 만, 부터’ 등 여러 보조사와 결합이 가능하였다. ‘에서’는 ‘도, 만, 부터’와 결합하였고, ‘으로’는 ‘도, 만’, ‘한테’는 ‘다(가), 도, 만’과 결합하고 있으나 출현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 나. 어미와의 결합

만 4-6세 아동의 자료에서 관찰된 보조사와 결합하는 어미에는 ‘-(으)니까, -(으)면, -고, -(으)리지, -어, -어라’ 등이 있었다.

- (2) 가. 제가요, 예뻐서요, 잘 돌봐주니까 친해졌어요. (6세 F)
- 나. 잠깐만 만들면은 돼요?- (4세 M)
- 다. 나쁜 놈이다, ((-)), 넌 그래서 당하고만 있었지, (5세 M)
- 리. ((-))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5세 F)
- 마. 똑같이- 바뀌만 하자. (6세 F)
- 바. 아들부터 일어나라까지 & 여긴 이렇게 돼 있어. (6세 M)

(2가)-(2바)은 어미와 보조사한 결합한 예들이다. ‘-(으)니까, (으)면, -고’ 등의 어미가 ‘은, 만, 도, 까지’ 등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연령에 따라 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사용 화자수와 비율을 살펴보기로

---

16) 연령별 전체 격조사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화자수와 동일한 순으로 출현하였고 연령별도 별다른 차이 없이 ‘에, 에서, (으)로, 한테, 하고, 보다, 랑, 에게’ 순으로 나타났다. 격조사 ‘보다, 에, (으)로, 한테’는 화자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 화자가 많아졌다.

한다.

<표 10> 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연령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

어미	4세		5세		6세		총합계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으)니까	9	10.59%	10	8.85%	11	13.92%	30	10.83%
-(으)면	1	1.18%	11	9.73%	9	11.39%	21	7.58%
-고	0	0.00%	3	2.65%	0	0.00%	3	1.08%
-(으)리지	0	0.00%	1	0.88%	1	1.27%	2	0.72%
-어	0	0.00%	0	0.00%	1	1.27%	1	0.36%
-어라	0	0.00%	0	0.00%	1	1.27%	1	0.36%

<표 10>을 보면, 4세에는 어미 ‘-(으)니까’만이 10% 정도의 비율로 출현하고 있었고, ‘-(으)면’은 1명의 화자만이 출현하고 있었다. 5세에는 ‘-(으)면’이 9.7%, ‘-고’가 2.6%의 비율로 보이고 있었고, ‘-고’와 ‘-(으)리지’가 매우 낮은 비율로 출현하고 있었다. 6세는 5세와 비교해 보면, ‘-고’ 대신에 ‘-어’와 ‘-어라’와 결합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지만 사용 화자 수는 1명에 지나지 않고 있었다.<sup>17)</sup>

보조사와 결합하는 어미 가운데에는 ‘-(으)니까’가 ‘은’과 결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0.11%로 비율이 매우 낮았고, 그밖의 어미와 보조사가 결합하는 형태를 사용한 화자 수의 비율은 더욱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 다. 보조사와의 결합

보조사와 결합한 보조사는 ‘까지, 들, 만, 부터’ 등이 있었다. (3ㄱ)-(3ㄷ)이 구체적인 예들이다.

- (3) ㄱ. 그래, 니네들도 잘했구나. (4세 F)  
 ㄴ. 여기 ((-))까지만 좀 띠어 줘. (5세 M)

17) 연령별 어미와 보조사의 결합 비율은 어미 결합 출현빈도를 전체 발화수로 나눈 것이다. 전체 발화수에 비해서 어미와의 결합 출현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4세(0.12%), 5세(0.15%), 6세(0.3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미와의 결합 비율도 조금씩 높아졌다.



- ㉔. “아용. 이번**만**은 살려주겠다.” (5세 F)
- ㉕. 여기, 여기**부터**는 이렇게 따야(쌓아야) 돼. (4세 M)

위의 예들을 보면, ‘까지, 들, 만, 부터’등의 보조사가 ‘도, 만, 은’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보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양상이 어떠한지 사용 화자수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보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연령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

보조사	4세		5세		6세		총합계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들	23	27.06%	37	32.74%	32	40.51%	92	33.21%
까지	1	1.18%	2	1.77%	0	0.00%	3	1.08%
만	0	0.00%	2	1.77%	0	0.00%	2	0.72%
부터	1	1.18%	1	0.88%	0	0.00%	2	0.72%

<표 11>을 보면, 보조사 ‘들’과 결합하는 비율이 29.41%, 37.17%, 40.5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었다. ‘까지, 만, 부터’는 사용 화자 수가 극히 적었고, 연령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sup>18)</sup>

보조사 ‘들’은 ‘도, 만’과 결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의 보조사들은 매우 낮은 출현 빈도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 3.2 성별 분포에 따른 출현 및 사용 양상

#### (1) 보조사의 분포별 출현 빈도와 비율

다음은 성별 변인에 따른 보조사의 분포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 빈도와

18) 연령별 보조사와의 결합비율은 보조사 결합 출현빈도를 전체 발화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결과는 위 화자수와 동일하게 ‘들’(0.37%), ‘까지’(0.02%), ‘부터’(0.01%), ‘만’(0.00%) 순으로 나타났다. ‘만’이 2번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0.00%로 나타난 것은 ‘만’의 출현빈도가 너무 낮아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성별 변인에 따른 보조사의 분포별 사용 빈도와 비율

형태	여자					남자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은	75	42	2930	59	9	40	28	2360	49	6
	1.32	0.74	51.39	1.03	0.16	0.85	0.59	50.03	1.04	0.13
도	52	5	1162	26	18	32	1	1045	21	38
	0.91	0.09	20.38	0.46	0.32	0.68	0.02	22.15	0.45	0.81
만	12	1	249	5	273	8	1	207	7	195
	0.21	0.02	4.37	0.09	4.79	0.17	0.02	4.39	0.15	4.13
들a			317					250		2
			5.56					5.30		0.04
다(가)	72		117			43		57		
	1.26		2.05			0.91		1.21		
까지	1		82		2	5	1	119		4
	0.02		1.44		0.04	0.11	0.02	2.52		0.08
밖에			36		8			46		14
			0.63		0.14			0.98		0.30
부터	5		34		2	10		41	1	
	0.09		0.60		0.04	0.21		0.87	0.02	
(이)나			30	1				38		
			0.53	0.02				0.81		
대로			32					25		
			0.56					0.53		
씩			27		3			18		1
			0.47		0.05			0.38		0.02
마다			14					4		
			0.25					0.08		

<표 12>를 보면, ‘은’은 여자와 남자 모두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와 결합하였고, 보조사와의 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결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와 ‘만’도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와의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도’와 ‘만’은 격조사, 어미, 부사와의 결합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결합비율이 높았고 명사구, 보조사와의 결합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결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들a’는 여자에서는 명사구와의 결합만 나타났고 남자에서는 명사구와 부사와의 결합이 나타났는데, 명사구와의 결합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결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가)’는 격조사와 명사구와 결합되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결합 비율이 더 높았다. ‘까지’는 여자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고 남자에서는 격조사, 어미,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공통으로 나타난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출현비율이 더 높았다. ‘밖에’는 여자와 남자 모두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출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터’는 여자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고 남자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보조사와 결합하였는데 공통으로 나타난 격조사, 명사구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결합비율이 더 높았다. ‘(이)나’는 여자에서는 명사구와 보조사와 결합하였고 남자에서는 명사구와 결합하였다. 명사구 결합비율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대로’와 ‘마다’는 여자와 남자 모두 명사구와 결합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씩’은 여자와 남자 모두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격조사, 어미, 부사와의 결합은 여자가 남자보다 출현비율이 높았고 명사구, 보조사와의 결합은 남자가 여자보다 출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보조사의 분포별 사용 화자 수와 비율

보조사의 분포별 사용 화자수를 성별 변인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성별 변인에 따른 보조사의 분포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

형태	여자					남자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
은	46	31	139	36	6	26	19	135	31	6
	32.62	21.99	98.58	25.53	4.26	19.12	13.97	99.26	22.79	4.41
도	38	3	135	19	16	27	1	134	18	24
	26.95	2.13	95.74	13.48	11.35	19.85	0.74	98.53	13.24	17.65
만	10	1	99	5	93	8	1	88	4	78
	7.09	0.71	70.21	3.55	65.96	5.88	0.74	64.71	2.94	57.35
들a			90					77		1
			63.83					56.62		0.74
다(가)	35		51			23		31		
	24.82		36.17			16.91		22.79		

까지	1 0.71	46 32.62	2 1.42	3 2.21	1 0.74	52 38.24	3 2.21
밖에		28 19.86	8 5.67			30 22.06	13 9.56
부터	5 3.55	25 17.73	1 0.71	7 5.15		22 16.18	1 0.74
(이)나		20 14.18	1 0.71			21 15.44	
대로		19 13.48				16 11.76	
씩		12 8.51	3 2.13			15 11.03	1 0.74
마다		12 8.51				2 1.47	

<표 13>을 보면, 사용 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은’은 여자와 남자 모두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 부사와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격조사, 어미, 보조사와의 결합은 여자가 높았고 명사구와 부사와의 결합은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와 ‘만’에서도 결합이 모두 나타났는데 ‘도’는 명사구와 부사와의 결합에서 남자가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고 ‘만’은 어미와의 결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 화자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들a’는 여자에서는 명사구와의 결합만 나타났고 남자에서는 명사구와 부사와의 결합이 나타났는데 공통으로 나타나는 명사구와의 결합에서는 여자가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다. ‘다(가)’는 격조사와 명사구와 결합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다. ‘까지’는 여자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고 남자에서는 격조사, 어미,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공통으로 나타난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의 결합에서는 남자가 결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밖에’는 모두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결합비율이 더 높았다. ‘부터’는 여자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부사와 결합하였고 남자에서는 격조사, 명사구, 보조사와 결합하였는데 공통으로 나타난 격조사, 명사구와의 결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다. ‘(이)나’는 여자에서는 명사구와 보조사와 결합하였고 남자에서는 명사구와 결합하였는데 공통으로 나타난 명사구와의 결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다. ‘대로’와 ‘마다’는 남자와 여자 모두 명사구와만 결합하였는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다. ‘씩’은 남자와 여자 모두 명사구와 부사와 결합하였는데 명사구 경우에는 남자가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고 부사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 화자수가 더 많았다.

### (3) 보조사의 분포별 결합 양상

성별에 따른 보조사의 분포적 결합 양상에 대해 보조사에 선행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격조사 결합

격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성별 변인에 의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4> 격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성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

격조사	여자		남자		합계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에	77	54.61%	56	41.18%	133	48.01%
에서	19	13.48%	15	11.03%	34	12.27%
(으)로	9	6.38%	4	2.94%	13	4.69%
한테	8	5.67%	4	2.94%	12	4.33%
하고	2	1.42%	1	0.74%	3	1.08%
보다	1	0.71%	1	0.74%	2	0.72%
랑	1	0.71%	0	0.00%	1	0.36%
에게	0	0.00%	1	0.74%	1	0.36%

성별 변인에 의한 결과를 보면, 연령 변인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 모두 ‘에, 에서’가 각각 40~50%, 10% 내외의 사용 화자 수 비율을 보였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격조사와의 결합 비율이 더 높았다. 격조사별로 살펴보면 ‘보다’와 ‘에게’만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에게’와의 결합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남자에서는 ‘랑’과의 결합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sup>19)</sup>

19) 성별 격조사와의 결합을 출현빈도로 살펴보면 화자수와 동일한 순으로 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출현빈도가 높았다.

## 나. 어미와의 결합

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성별 변인에 의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성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

어미	여자		남자		합계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화자 수	비율
-(으)니까	20	14.18%	10	7.35%	30	10.83%
-(으)면	11	7.80%	10	7.35%	21	7.58%
-(으)리지	2	1.42%	0	0.00%	2	0.72%
-고	1	0.71%	2	1.47%	3	1.08%
-어	1	0.71%	0	0.00%	1	0.36%
-어라	0	0.00%	1	0.74%	1	0.36%

‘-(으)니까, -(으)면, -(으)리지, -어’의 어미와 결합하는 비율은 여자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으)니까’의 경우는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고’와 ‘어라’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사용 화자수가 낮아 성별에 의한 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sup>20)</sup>

## 다. 보조사와의 결합

성별 변인에 따른 보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양상을 정리해 보면 연령 변인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표 16> 보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의 성별 사용 화자수와 비율

보조사	여자		남자		합계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화자수	비율
들	50	35.46%	42	30.88%	92	33.21%
만	2	1.42%	0	0.00%	2	0.72%
부터	1	0.71%	1	0.74%	2	0.72%
까지	0	0.00%	3	2.21%	3	1.08%

20) 어미와의 결합을 출현빈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화자수 결과와 동일하게 여자(0.23%)가 남자(0.14%)보다 결합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개별 어미와의 결합 비율은 출현빈도가 너무 낮아 0.00%으로 표시되어 값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

<표 16>에서 보듯이 보조사 ‘들’과 결합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30% 이상을 보이고 있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밖의 보조사는 화자수가 1-3명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어 남녀 차이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21)</sup>

## 4. 결론

본 연구는 만 4세-6세 아동의 보조사 사용에서 나타나는 연령별·성별 특징을 형태의 출현 및 사용 양상과 분포에 따른 출현 및 사용 양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출현 빈도와 사용 화자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4세-6세 아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조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조사 출현 빈도와 사용 화자수의 비율을 보면, 두 결과 모두 ‘은, 도, 만, 들a, 다(가), 까지, 밖에, 부터, (이)나, 대로, 씩, 마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조사의 사용 비율도 높아졌다.
- 2) 성별로 보조사 출현 빈도 비율과 사용 화자수의 비율 결과를 정리해 보면, 두 결과 모두 ‘은, 도, 만, 들a, 다(가), 까지, 밖에, 부터, (이)나, 대로, 씩, 마다’순으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에서는 총 12개 보조사 중 ‘은, 도, 만, 들a, 다(가), 대로, 씩, 마다’의 8개가 여자가 높았고, 사용 화자수에서는 ‘은, 만, 들a, 다(가), 부터, 대로, 마다’의 7개가 여자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보조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 3) 연령별 분포에 따른 출현 양상에서는 ‘은’이 빈도 비율과 화자수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격조사, 어미, 명사구, 보조사와의 결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합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졌고 부사와의 결합은 결합 비율이 4세와

---

21) 보조사와의 결합을 출현빈도로 살펴보면 사용 화자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0.44%)가 남자(0.36%)보다 결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5세에는 높아졌다가 6세에 낮아졌다.

- 4) 성별에 따른 분포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격조사, 어미, 부사와의 결합은 여자가 남자보다 출현비율이 높았고 명사구, 보조사와의 결합은 남자가 여자보다 출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만 4-6세 아동의 보조사 사용에 대한 결과는 유아의 교육 자료 및 평가 도구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보다 풍부한 전달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보조사는 표현 언어 능력을 기르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보조사, 형태, 분포, 출현 빈도, 사용 화자 수



### <참고문헌>

- 권도하·정분선(2000), 「2-5세 아동의 조사 발달 연구」, 『언어치료연구』 9-1.
- 김수영·배소영(2002), 「언어발달 지체 아동의 문법 형태소 사용 특성」, 『음성과학』 9-4.
- 문현아(2007),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보조사 이해 및 산출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석준·남길임·서상규(2003), 「대학생 구어 텍스트에서의 조사·어미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배소영(1997), 「한국 아동의 문법 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
- 이순형(1983), 「한국 아동의 언어 획득에 관한 연구 II」, 『덕성여대 논문집』 12, 183-203.
- 이승희·황민아(2002), 「3-6세 한국 아동의 보조사 발달에 따른 연구: 은/는, 만, 도」, 『언어청각장애연구』 7-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이연섭·권경안·김성일(1979), 『한국 아동의 구문발달(I)』, 한국교육개발원.
- 이필영·김정선·심민희(2009), 「유아의 보조사 사용에 관한 종적 연구: 31-4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40.
- 이희란(2004), 「2세 한국 아동의 보조사 ‘은/는’ 산출에 관한 종단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9-3.
- 장미화(1987), 「2세아의 어휘 사용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미하(2003), 「2;6-3;5세 한국아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종단적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 A Study on Use of Delimiters in Early Childhood by Age and Sex: Centered on Children of Four to Six Years Old

Lee Pilyeong, Kim Jungsun, Lee Sangsuk

In this study, the author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delimiter use by children of four to six years old based on age and sex, according to appearance of forms and modes of use and appearance by distribution and modes of use. Frequency of appearance and number of speakers were investigated to b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of four to six years old used more enhanced delimiters when their age was higher. As for the rate of frequency of delimiter appearance and the number of speakers by ages, '-en,' '-do,' '-man,' '-dula,' '-da(ga),' '-ggaji,' '-ba-ke,' '-buteo,' '-(ei)na,' '-daero,' '-ssik,' and '-mada' (in order) were seen in both cases, and use of delimiters was more frequent when their age was higher. Second, as for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delimiters and the number of speakers by sex, '-en,' '-do,' '-man,' '-dula,' '-da(ga),' '-ggaji,' '-ba-ke,' '-buteo,' '-(ei)na,' '-daero,' '-ssik,' and '-mada' (in order) were seen in both cases. Eight such as '-en,' '-do,' '-man,' '-dula,' '-da(ga),' '-daero,' '-ssik,' and '-mada' out of the total twelve delimiters were frequent in females in the frequency of appearance, and '-en,' '-man,' '-dula,' '-da(ga),' '-buteo,' '-daero,' and '-mada' were frequent in females in the number of speakers, indicating that females generally used delimiters more frequently than males did. Third, as for modes of appearance based on distribution by sex, '-en' was highest in rate of frequency and number of speakers. When age was higher,

combination with case particles, endings, and delimiters was gradually higher. Combination with adverbs was frequent in childhood of four and five years old and then declined upon reaching six years old. Four, as for distributed characteristics by age, combination with case particles, endings, and adverbs was more frequent in females than in males, while combination with noun phrases and delimiters was more frequent in males than in females.

**【Key words】** Delimiters, Forms, Distribution, Frequency of appearance, Number of speakers

---

이필영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한국어언어문학과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전자우편: lpy6195@hanyang.ac.kr

김정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전자우편 : olivetree11@hanmail.net

이상숙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전자우편 : reduck2@empal.com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1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